



제10차 ASTAP(APT Standardization Program)

TTA 표준화본부 표준총괄팀, ASTAP AUG Co-리포처 **김기훈**
 TTA 표준화본부 전략기획팀, ASTAP ITU-T Issue 그룹 라포처 **박종봉**
 ITU-T SG11 부의장, ETRI 표준연구센터 **이형호**

1. 개요

가. 조직

- ASTAP 총회(Plenary)
- 3개 Joint 전문가그룹 및 산하 표준화분야별 11개 전문가그룹(Expert Group)
- 작업방법그룹, 산업계연계그룹, 규제제도그룹, ITU-T 이슈그룹, 접근성 및 사용성그룹

나. 참석자 : 164명(한국 참가자 : 34명)

○ 대표단 :

- 국가대표단 : 이형호 센터장(ETRI), 이준원 교수(안동대, NGN E/G Co-리포처), 안재경 교수(서울산업대), 신동명 선임(KISA), 박종봉 선임(ITU-T 이슈그룹 및 전략계획 T/G 라포처), 전철기 과장, 조은주, 김기훈 과장(이상 TTA)
- 회원사 참여 : 박기식 단장(ASTAP 자문위원회), 이병남 책임, 서동일 팀장(IS E/G 라포처), 이승운 팀장(IRT E/G 라포처), 이강찬 선임(NGW E/G 라포처), 강신각 팀장, 나재훈 팀장, 이준섭 선임(RFID E/G 라포처), 전중홍 선임, 박웅 연구원, 이원석 연구원, 송재영 연구원, 김명은 연구원, 조현성 선임, 구분준 선임, 유상근 선임, 박혜진 연구원, 인민교 연구원, 김경일 연구원, 송선경 연구원, 이재섭 초빙연구원(이상 ETRI), 이희태 차장, 정명은 연구원(이상 LG전자), 김춘규 수석, 정대교 선임, 김미연 연구원(이상 KT)

다. 회의일정(2005. 10. 24 ~ 28)

10/24(월)	10/25(화)	10/26(수)	10/27(목)	10/28(금)
ASTAP 운영위원회	NGN & VoIP 워크숍	ASTAP 총회	접근성 및 사용성 워크숍	JEG별 회의
			JEG별 회의	ASTAP 총회

라. 회의장소 : 호주 멜버른, Rydges Hotel

마. 주최 및 주관

- 주최 :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 주관 :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2. 주요회의내용

가. ASTAP 문서개발 절차 관련

- ASTAP 기술문서의 승인 절차 중 지난 9차 ASTAP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권고 승인 반대 회원국의 수와 관련하여, 절차 초안에 기술된 관련 문구의 불명확성에 따라 회원 간 이견이 초래되었음을 인지하고 “2개국 혹은 이상(not adopted if two or more APT members oppose adoption or approval)”으로 수정함.
- 동 ASTAP 문서개발 절차 수정안을 12월에 개최될 30차 APT 관리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키로 함.

나. Pilot Project 관련

- 지난 29차 APT 관리이사회에서 동의된 Pilot 프로젝트의 개념은 관리이사회에 요청에 따라 제9차 ASTAP 회의에서 논의(NGN JEG 및 OWMG)된 바 있으나, 현 단계에서 Pilot 프로젝

트 도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본 이슈와 관련한 기고 및 의견이 없는 관계로 Pilot 프로젝트의 개념은 유지하되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논의키로 함.

다. ASTAP 전략계획 관련(2006-2008)

- ASTAP 전략계획그룹(Rapporteur, 박종봉)에서 작성하여 ASTAP 총회에서 발표한 ASTAP 전략계획 초안은 APT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ASTAP의 목적과 ASTAP 전략에 대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차기 APT 관리이사회(Management Committee)에서 승인토록 제출할 예정임
- 단, 전략계획 수정안에 대한 회원국의 최종 검토를 위해 11월 14일까지 약 2주간 전략계획을 회람한 후 최종 전략계획(안)을 공시키로 함.
- APT 관리이사회에 승인 이후 전략계획 이행그룹에서는 ASTAP 전략계획의 우선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ASTAP 각 그룹에 연락문서로 송부키로 결정함.

라. ITU-T 이슈

- AAP 최소회원국 거부권수 이슈는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개별국가의 주권과 무관하며, TSAG은 WTSA 결정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논할 수 없음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11월 TSAG 회의에서 CEPT, ATU 등과 협력하기로 결정함.



- 표준화격차 해소문제는 APT 공동기고서의 주요한 결과물이며, 관련 결의(PP-02 결의 123, WTSA-04 결의 17/44)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동 사항에 대한 APT 회원국의 참여와 기고서 제출을 독려하기로 함.
- ITU-T 권고에 대한 무료 접근 관련 WTSA-04에서 동 사항을 결정하였으나, 2005년 이사회는 예산 문제와 권고의 무료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소개함.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PP 결의(66)의 수정에 대한 APT 공동기고서 개발을 고려하기로 함.

(호주)이 사임함에 따라 Co-Rapporteur를 맡고 있던 이준원 교수(안동대)가 Rapporteur로 선임되었으며 기존의 인도 외에 일본, 베트남에서 추가로 Co-Rapporteur를 수입함.

- Regulatory Liaison Group의 Rapporteur인 Mr. Patrick Emery(호주)가 사임하고 이병남 책임(ETRI)이 새로운 Rapporteur로 선임됨.
- ASTAP 전략계획 T/G의 라포처인 박종봉 선임(TTA)이 사임하고, 박용 연구원(ETRI)이 선임됨. 다만, ASTAP 전략계획의 APT MC 승인시점까지는 전임 라포처가 직을 유지하기로 함.
- Accessibility and Usability Working Group Co-Rapporteur로 김기훈 과장(TTA)이 선임됨.

마. Expert Group Rapporteur 진출

- NGN E/G Rapporteur인 Mr. Peter Darling

바. 전문가그룹 주요결과

EG 그룹명	주요이슈	주요결과
OWM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작업방법(EWM) 이슈 - ASTAP 문서 승인절차 - Pilot Project - ASTAP 전략계획 2006-2008 - ITU-T 구조 및 WTSA 결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TAP 개발 문서 승인에서의 최소 회원국 거부권수를 2개 국 이상으로 하고 차기 관리이사회에 상정 - 신규 ASTAP 전략계획(2006-2008)을 확정하고 회원국 최종 검토를 거쳐 차기 APT 관리이사회에 제출 - 현 단계에서 Pilot Project 도입 및 논의의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회원들의 기고를 기반으로 논의
ITU-T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U-T 회의의 전자적 작업환경 개선 - WTSA-04 결의 및 ASTAP 향후 활동 - PP-06 표준화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me-E 구현을 위한 전자적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키로 함 - 표준화격차 해소에 대한 ITU 차원의 노력을 위해 APT 회원국의 참여와 기고서 제출을 독려(장기적으로 APT 공동기고서 개발) - ITU-T NGN 조직구조 개편에 대하여 본 그룹의 향후 주요 의제로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함
JEG on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T 및 RFID E/G Terms of Reference 검토 - NGN E/G 라포처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N E/G 라포처로 이준원 교수(안동대) 선임 - Regulatory Reliasion Group 라포처로 이병남 책임(ETRI) 선임 - RFID E/G의 명칭을 Network RFID E/G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향후 이메일로 논의 - IRT EG에서 IPv6 표준화이슈를 처음 소개하여 표준화협력 아이템으로 결정 - 차기 회의를 2006년 3월 일본 고베에서 개최키로 함

EG 그룹명	주요이슈	주요결과
JEG on Wireless	- HAPS E/G 페지 관련	- HAPS 개발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EG 활동이 저조하여 향후 ad-hoc 형태로 운영 - 재난통신과 관련한 APT 권고 초안 개발 논의
JEG on IT Application	- 차세대 기술 관련 정보 발표 : WS-CPP, Semantic Web	- WS-CPP(Web Services Conversation Preference Profile)와 Web Services based NGN Convergence Service Scenario를 아태지역 의견반영 후 W3C와 ITU-T SG13에 제출
접근성 및 사용성 작업그룹	- 그룹 Terms of Reference 승인 - 접근성 관련 각국 정책 및 표준화현황에 대한 Survey 방법 논의	- 각 국의 접근성 표준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서를 개발기로 하고 설문을 개발할 Sub-Committee 구성 - ETSI Acronyms 가이드와 같은 Acronym 가이드를 개발 - Co-라포처로 김기훈 과장(TTA) 선임

사. 기타사항(회의 주기 및 차기회의)

- ASTAP-11 회의는 6월경 개최될 예정임(개최장소 미정, 희망국이 없을 경우 방콕개최)

3. 관찰 및 의견

- 금번 ASTAP 포럼은 ASTAP 문서개발 절차가 마무리되고 ASTAP의 전략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NGN, VoIP, Accessibility & Usability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예년과는 달리 ASTAP 활동의 체계화와 더불어 향후 작업방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돋보였던 회의로 평가할 수 있음.
- 아울러, NGN, 규제연락그룹, 전략계획그룹, 사용자그룹에 한국 전문가가 추가로 진출됨에 따라

아국의 ASTAP 활동 영향력이 확대된 회의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호주가 의장단에서 대거 물러났으며, 대부분의 ASTAP 의장단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ASTAP의 건전한 발전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됨.

- 2004년 AWF의 설립 이후 Millimeter Wave 통신 및 재난관리무선통신시스템(DMCS) E/G가 설립되는 등 무선통신 부분의 양적인 팽창을 보였지만 실제 기고문 제출 및 참석도에 있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는 APT 내 APG 및 AWF와 같은 무선통신그룹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APT 내에서 APT 각 프로그램 및 그룹들에 대한 확실한 역할분담이 필요함.
- 또한, APT 내 APG, AWF, ASTAP, Study Group 등 APT 사업 전반을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체계가 필요함. **TTA**